

FW: RE: RE: RE: RE: RE: RE: RE: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다 읽었어요. 음보낸사람 김명호<mkim1795@hanmail.net> [주소추가](#) [수신차단](#)

26.01.14 (수) 15:04

받는사람 김명호<mkim1795@hanmail.net> [주소추가](#)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받는사람:** choeREDi <goflb@hanmail.net>**날짜:** 26.01.12 20:37 GMT +0900**제목:** RE: RE: RE: RE: RE: RE: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다 읽었어요. 음

보낼 필요 없네.

난 작년에 더 이상 개돼지들 병신짓 반복하는 거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choeREDi <goflb@hanmail.net>**받는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날짜:** 26.01.12 20:29 GMT +0900**제목:** RE: RE: RE: RE: RE: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다 읽었어요. 음

당연히 록음 했는데, 화일속성을 이메일로 못 보내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첨부할 수 없는 파일 형식입니다.

> 관련 도움말 보기"

CD를 보내드릴테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받는사람: choeREDi <goflb@hanmail.net>

참조: 이승훈 <shoonlee1023@gmail.com>

날짜: 26.01.12 20:21 GMT +0900

제목: RE: RE: RE: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다 읽었어요. 음

현수막을 그 따위로 만들게 내버려 두었다는 그 자체가 병신짓인 거 맞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와 의견 다르면, 자네가 틀린거네.

1. 변론 녹음 신청했나?

녹음 있으면 당장 올리게

2. 기막히군 정말... 흥분? 그런 것도 예상 못했나? 그렇게 당하고도?

선거가 개판이란 걸 10여전에 이미 알았고, 법원 전체가 범죄단이라 자네+한영수+김필원씨가 불법 감금까지 당했었고
내가 석궁조작사건으로 보여주었고, 작년의 윤석열 현재 재판에서도 드러났는데...

학습이 안 되는 건가? 아직까지도

기피신청, 기일변경 등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걸 모르는 자네+한영수+김필원이 개돼지 병신들인 거야

=> [대법원 타도 없이는 소송소류는 헛지랄](#)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choeREDi <goflb@hanmail.net>

받는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날짜: 26.01.12 19:22 GMT +0900

제목: RE: RE: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다 읽었어요. 음

그 사진은 단순히 병신짓한 사진이 아니고, 서울고법2014노3027한성천 김진건 최성년 사건 형사재판 후에 찍은 거예요.

현수막은 대변인이 적당히 만든 것 쓴 것이고, 중요한 건 당시 형사재판이었죠.

지금 서초동 사무실에 기록이 있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 당시에 재판 대단했었어요.

그날 재판장(서울고법 제3형사부 이승한)이 변론종결하려고 했는데, 김진건(구 김필원) 대표가 기피의사를 밝혔고

휴정 후 재판장이 재판지연을 위해 기피하는 것이라며 즉시기각했는데, 제가 지난기일 재판기록복사신청했는데 조서를 빼고 줘서 조서열람을 못했기 때문에 기일변경신청을 했

어요.

재판부가 계속 강행하려 해서 대판 싸우고 결국 12월로 다음기일 지정하고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재판장, 모두진술 했어요?!"라고 따졌고, 끝나고나서 또 재판기록복사신청하니까 12월로 잡혔던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바뀐 상태예요.

- 공판절차갱신하면 모두진술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모두진술을 안 했는데도 '조서'에는 모두진술을 한 것처럼 써놓음.

방청 온 사람들이 다 흥분한 상태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고, 그 때 미리 적당히 만들어 놓은 현수막을 쓰고 찍은 게 저 사진입니다.

10/21 부정선거 투쟁, 재판을 마치고

https://youtu.be/wVbfuu0ZVek?si=pv_37zGGzv96sT2V

"한성천 재판 후 기자회견(법정 농간 후 보고)"

<https://www.youtube.com/live/dFsvF3NCHBw?si=RtA1sBfaWd98BYyv>

[생방송] 11월 4일 한국공정선거연합회 기자회견, '대법원은 6.3 대선 무효소송재판 촉구' '서울고법은 대선부정백서 명예훼손죄 재판

https://youtu.be/8_ZFL5m67vA

한대표님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618호(서초동)

서초역2번출구 나가면 바로 있어요.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받는사람: choeREDi <goflb@hanmail.net>

참조: 이승훈 <shoonlee1023@gmail.com>

날짜: 26.01.12 16:22 GMT +0900

제목: RE: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다 읽었어요.

읽으면 뭐 하나?

A group of approximately 15 people, mostly men, are standing in a line on a paved area, holding a long white banner. They are dressed in casual winter clothing. Behind them is a large, modern building with many windows, partially obscured by tall, leafy trees. To the left of the group is a curved metal structure, possibly a greenhouse or a walkway. The banner has bold black and red text. The main text on the banner reads: '대법원은 6.3 대선무효소송재판 속개하라!'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sume the 6.3 election nullity lawsuit trial!), '서울고법은 대선부정백서 명예훼손죄 사건을 재판으로 진설 규명하라!' (The Seoul High Court should set the case of defamation of the election fraud white paper as a trial and clarify it!), and '한국공정선거연합회 김진건 / 한성천 공동대표 외 국민일동' (Korea Fair Election Alliance Kim Jin-geon / Han Seong-cheon joint representative and all citizens). A smaller sign on the left side of the banner says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Petition).

1/14/26, 15:06

FW: RE: RE: RE: 교수님께 올립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받는사람:** 이승훈 <shoonlee1023@gmail.com>**참조:** 정달영 <haksan@me.com>, 김현광 <hkkim@postech.ac.kr>, 김봉식 <kbsarbr@daum.net>, 13math <13math@hanmail.net>**날짜:** 26.01.10 09:20 GMT +0900**제목:** RE: Re: Re: 교수님께 올립니다.

니체?

석궁사이트 읽었다면서 뭘 본 건가? 아무것도 이해 못한 걸 드러내는군.

1. 주둥이질만 하는 것들 싫어한다네

젊었을 땐, 뭘가 뭘지 몰라 무조건 유명한 거 쫓아다녔지, 늘 한쪽 구석은 흐리멍텅 찜찜해 하면서
그 유명하다는 것들에게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수께끼나 조물락대고
뭘 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 뭘고, 뭘 모르고... 뭘 밝혀야 하는지
니미 시발이었지

2. 2024년 초에 득도, 조금씩 깨달아 가는데

(1) 전세계 대다수, 최소한 90%이상, 학자라는 것들이 돌대가리 쓰레기

(2) 아르키메데스, 갈릴레이, 뉴턴, 리만, 맥스웰, 아인슈타인, 파인만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가르침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은 이기론의 수학적 description

----- 원본 메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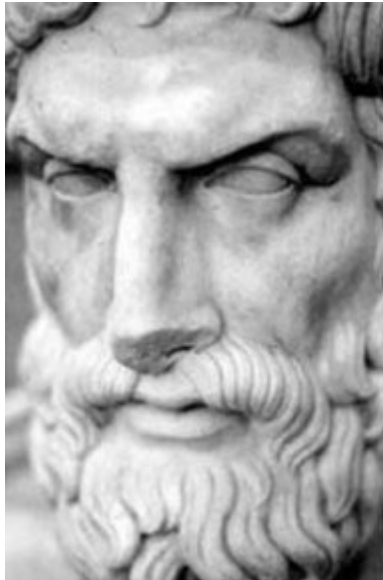
보낸사람: 이승훈 <shoonlee1023@gmail.com>**받는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날짜:** 26.01.08 22:21 GMT +0900**제목:** Re: Re: 교수님께 올립니다.

니체적 세계관이십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조언 잘 참고하겠습니다.

On Thu, Jan 8, 2026 at 9:10 AM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wrote:

진실 드 자연, nature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에피쿠로스-

이우영, 허준이 등 쓰레기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이승훈 <shoonlee1023@gmail.com>

받는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날짜: 26.01.07 21:11 GMT +0900

제목: Re: 교수님께 올립니다.

김명호 교수님.

교수님께서 그런 개돼지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진실의 존재를 믿으시는지요.

결국 지금의 현실은 개돼지들의 믿음이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개돼지 세상에서 모두가 파멸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문제의 모든 시작은 이우영 교수와 채영도 교수의 무책임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석학교수가 되어서 국가의 돈을 받으며 세상의 존경을 받는군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우영이 진실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승훈 올림

On Mon, Jan 5, 2026 at 5:56 PM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wrote:

내가 판결 불만으로 의거 일으킨 줄 아나? 역시나 개돼지군

1. 개/헛소리 하기 전에 공부 좀 하거나

=> [대법원 타도 없이는 모든 게 개판](#)

2. 고초도 억울한 것도 없네.

단지, 이 세상이 **두번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개돼지 천국**이란 걸 몰랐던 것 뿐일세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중앙뉴스 <news@ejanews.co.kr>

받는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날짜: 26.01.05 17:40 GMT +0900

제목: 교수님께 올립니다.

교수님,

과거 입시 문제의 오류를 학문적 양심으로 끝까지 밝혀내셨던 그 기개와, 법치주의를 위해 홀로 감내해 오신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긴 세월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셨을지 감히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당시 언론 역시 김승연 회장의 행태를 마피아 식 보복이라 부르며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재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사적 무력을 동원한 그 폭력성에 대해 언론이 우호적이었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김 회장의 사건이 아버지가 자식 일로 격분해 쫓아가서 겁을 준 사적인 폭행이었다면, 교수님께서 손에 드셨던 석궁은 상대가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실제로 쏘느냐 아니냐의 논란을 떠나서, 그런 살상 무기를 들고 대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이 느끼는 단어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이 해결책이 된다고 어떻게 언론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인명 살상의 위험이 실재했던 행위 앞에 의거라는 단어를 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법 판결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각자의 정의를 내세워 칼이나 활을 드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적 제재가 정당화돼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을 언론은 늘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글을 썼던 기자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 교수님 개인을 향한 공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물리적 충돌의 현장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입장이라 보시고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의 진심과 학문적 성취가 폭력이 아닌, 진정한 정의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앙뉴스 박주환 올림.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김명호 <mkim1795@hanmail.net>

받는사람: yeonvic@sedaily.com, thebasis3@gmail.com, photo@yna.co.kr, mjkang@yna.co.kr, one@yna.co.kr, encounter24@yna.co.kr, kkkim@tjb.co.kr, dmsgud@hani.co.kr, gj920@ytn.co.kr, ytnstar@ytn.co.kr, jsj8580@dailian.co.kr, hyy@dt.co.kr, happiness@kyeonggi.com, dmsgud@hani.co.kr, jsj8580@dailian.co.kr, news@ejanews.co.kr, gjjn3220@hanmail.net, goodtvnews@goodtv.co.kr, sbsnewmedia@sbs.co.kr

날짜: 26.01.05 15:09 GMT +0900

제목: 개돼지 기자 시발년놈들아, 법치수호 투쟁 '석궁의거'를 테러라고 쓰고 얼마나 받아 처먹냐? 법 위반 재판 판사년놈들 죽여도 정당방위



박홍우

대법원 '주둥이'를 법으로 받들며 주둥이질로 살인재판한 그 개만도 못한 박홍우 새끼
 싸 죽였어도 정당방위다 => [석궁의거 동기](#)

니들은 1+1=? 이 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없어서
 남들이 1+1=3 이라고 한 것도 사실인양, 그대로 받아쓰기만 할 정도의 돌대가리냐?

아래 [2007년 10대 뉴스](#) 김승연 사건과 비교한 표 보라

대구리 나쁘면 노력이라도 하던지 발품이라도 팔아라, 이 돌대가리 병신아!

2026
 석궁 김명호

한화 김승연 재판과 비교해 보라, 이게 법치 재판이냐? 개판이지

군부정권 '똥개'에서 '死法독재권력'으로 탈바꿈한 대법원이
 공론장에 끌어내 타도해야 할 [반법치 주범](#)이란 말이다

[대법원 '주둥이'](#)를 법으로 받드는 개돼지 세상의 개판:
[검찰+창녀언론](#)와의 공모 걸작: 총기 휘두른 김승연 사건 : 석궁의거

	김승연 사건	석궁의거
사건 시기	밤 11 시 이후	오후 6시 30분경
전과	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	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총 ,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	증거 조작 및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	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	전치 3주(증거 없음 , 자해 뒤편 사진)
가담자	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단독
적용법조	[폭처법] 집단 흥기상해, 집단 흥기폭행, 공동상해, 공동감금	[폭처법] 흥기상해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 업무방해	
검찰 구형	2년	10년
최종 형량	집행유예	4년 징역